朝鮮日報

今日四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迷信打破

一

人智未開의 蒙昧한 社會일사록 迷信의 流行이 만흔것이니 古代의 社會는 現代의 社會보다 野蠻의 社會는 文明의 社會보다 그程度가 各各 甚한것은 물을것도 업다 한時代 한社會의 智識程度로써 理解하지 못할 自然界의 現象에 對하야 그時代 그社會의 人間들이 驚異를 늣기며 神秘에 부처지 아니할수업는것이니 日月星辰의 運行으로 비롯하야 病老生死의 人事에 일오기까지 事事物物에 神의 形體를 부처어 보기도 하며 神의 意志를 通하야 생각하기도 하는것이다 그럼으로 오늘날 星辰의 일홈이 昔日의 神名으로 남아 잇는者가 얼마나 만흐며 生殖과 死에 對한 崇拜가 또한 얼마나 傳하야 잇슴을 보지 안는가? 그러나 科學智識이 發達된 오늘에 잇서서는 天文이나 人事나 그밧게 모든것에 關하야 因果의 法則을 發見하지 아니함이 적으니 딸아서 迷信도 그 存在理由를 일케 되는것이다

二

그러나 執着心이 强한 一部의 人間들은 原始形態 그대로 迷信의 衣鉢을 傳하여 오는者도 적지 아니하거니와 그 迷信을 昇華시키어 迷信대로의 合理化를 꾀하는 者도 만히 잇다 前者에 잇서서는 文化程度의 幼稚한 社會에서 흔히 보는것이나 後者에 잇서서는 文化程度가 比較的 高度에 達한 社會에 限하야 차저볼수 잇스니 宗敎의 倫理化 觀念化 가튼것이 곳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科學이 發達된 社會에 잇서서 原始的 迷信을 遵奉하기에는 人智가 너무나 開明되어 잇슴으로 거긔에 倫理的 或은 觀念的 假面을 씌우어 迷信의 正體를 掩蔽하려함에 지나지 못한다 만일에 이것을 極度로 追究한다면 人間의 理想에 到達할것이나 現實에 基礎하지 안한 理想은 幻想에 떨어지고 말것이니 迷信의 合理化는 結局 迷信의 自滅을 促成케 함이다 萬의 神은 어데 잇는가? 人間自體를 떠나 善을 생각할수 업는것이매 神의 人格化가 여긔서 비롯하엿스니 神은 人間의 한 理想에 지나지 못할것이며 眞의 神은 어데 잇는가? 恒河沙數의 事物이 因果法則에 依하지 아니함이 업스매 結局은 無數한 神을 創造하지 아니하면 無數한 神을 否定하기에 일으는것이니 苟且히 否定의 否定을 云爲하야 人間의 思考力을 虛無의 世界로 彷徨케 함과 가틈은 한 觀念의 遊戲에 지나지 못하는것이다

三

이와가티 迷信은 科學의 照魔鏡에 비추이어 그 存在가 危殆하여 가는 形便이다마는 엇더한 時代를 莫論하고 社會의 支配階級은 그 無批判的 盲從의 힘을 빌기 爲하야 도리어 迷信을 利用하여 왓다 처음 文藝復興의 結果 科學思想이 勃興하엿슬즈음에 當時의 支配階級인 僧侶 以下의 爲政者들은 이에 對抗하야 얼마나 必死의 힘을 다하엿든것인가? 數만흔 科學者들은 그들의 毒牙에 걸니어 無慘하게 犧牲되엇섯다 마는 科學의 眞理는 굽힐수 업섯다 오늘날 科學文明의 燦然한 發達은 實로 中世 科學者들의 偉大한 功績에서 비롯하야 나온것이라고 아니할수업다 그러나 社會自體에 關한 科學에 對하야는 아즉까지도 地球中心說을 固持하든 中世의 態度를 버서나지 못하엿다 從來의 社會는 幾多의 變革을 거치어 왓슴에 不拘하고 오늘날의 社會는 固定不變한것을 盲信케 한다 오늘날의 모든 迷信的 形骸는 비록 昔日의 威力을 가지지 못하엿스나 그 固定不變하는 社會觀을 爲하야 忠實한 代辯者가 됨에는 다름이 업는것이다 다만 境遇에 딸아 無意識的으로 그 結果를 달니하는 때도 업지 아니하나 根本的으로 科學精神을 排擠 沈滯케 함에 일으러서는 同一한 것이다

四

그러면 朝鮮社會는 엇더하냐? 雜多한 迷信的 遺物이 新舊를 莫論하고 混沌하야 잇는中 더욱 晩近에 일으러서는 도리어 熾盛하는 形便임에 놀나지 아니할수 업다 原始的 迷信 그대로가 至今 公然하게 形勢를 어더 白晝에 出沒하는 狀態이니 그 남아지에 미러서야 다시 더 말할것도 업다 보라! 鄭鑑錄의 씨은 文書를 據하야 그동안에 몃十個의 迷信團體를 産出하엿스며 이로 말미암아 現在 얼마나 만흔 徒衆이 欺弄되어 잇는가? 정도령이 出現하엿다! 鷄龍山에 草鞋가 올니엇다 더니 無數한 정도령이 쏘다저 나왓다 —— 山間에도 街頭에도 惑世誣民의 徒가 자최를 끈이지 아니한다 果然 그러타면 朝鮮社會는 이러한 幼稚한 迷信的 存在까지도 容許할만치 蒙昧하냐? 그들은 決斷코 生長할만한 社會的 根據가 업시는 生長할수 업는것이니 그것이 비록 一部이나마 蔓延할수 업는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芟除함에는 무엇으로써 할것인가? 오직 科學의 힘을 빌지 아니하면 안될것이니 民衆에게 科學精神을 注入하야 迷信의 犯接할 餘地를 주지 아니함이 그 한 方策이오 또 그 迷信的 幽靈體를 科學의 메스로 解剖하야 民衆에게 그 正體를 暴露함이 남어지 한 方策일것이다 우리는 京城 一隅에 迷信打破運動이 일어남을 보고 더욱 그 늣김을 갓게 하는 바이다

芝罘方面一帶 全部戰巷化! 福山을中心으로하야 全線戰鬪開始

(北平二十三日發) 芝罘에 在한 張宗昌代表와 劉珍年氏와의 和議가 決裂되어 兩軍의 前線部隊는 二十一日 福山方面에서 開戰하얏는바 以來 戰鬪는 漸次 全線에 波及하야 二十二日 午前三時부터는 福山을 中心으로 激戰이 開始되엇는데 劉珍年氏 自身이 戰線에 出馬하얏더라

激戰數次에 張宗昌軍連敗

(北平二十三日發) 張宗昌軍과의 總攻擊 開始로 芝罘方面은 全혀 戰禍의 巷으로 化하엿다 爲先 黃鳳岐軍은 二十一日 午前零時부터 行動을 開始後 福山의 劉珍年軍의 防禦戰의 南端을 突破하려다가 衝突되어 約三時間, 月明二[村]에서 交戰한바 兩軍間에는 死傷이 잇섯고 附近의 村落에 多大한 損害를 與하엿스나 黃軍은 遂히 退却하얏다 張軍은 二十二日 다시 該陣地의 北端을 猛擊하기에 全力을 傾注하야 戰線은 漸次 擴大되어 終日 激戰을 하야 黃軍主力은 八角口에 殺到하엿스나 劉軍의 逆襲의 奏効로 다시 退却하얏는바 二十三日 朝來 戰線으로부터 千數百의 死傷者를 運搬中으로 芝罘는 五色旗에 包圍되엇스나 大勢로 劉軍이 優勢이더라

(北平廿三日發) 張宗昌의 芝罘奪取는 이금 處地로는 全혀 失敗에 歸하얏다 右는 劉軍의 武器彈藥이 豐富하고 固히 陣地에 據함에 對하야 張軍은 徒히 步兵만이 多한 外닭이라고 한다 此戰鬪로 張軍 戰死百, 捕虜五百, 負傷不明, 小銃千挺 機關銃十五가 鹵獲되엇더라

張宗昌軍行動制限 討伐軍은 諒解求하면 鐵道通過容許 日本官憲聲明書發表

(靑島二十三日發) 張宗昌軍의 山東에 在한 行動에 關하야 日本官憲은 左와 如한 聲明을 發하얏더라

一、日本軍警備區域內의 軍事行動을 不許함

一、治安交通에 害가 잇다고 認하는 軍隊의 鐵道通過를 不許함

一、中國正規軍으로서 討伐에 向하는 者에 對하야는 미리 日本軍의 諒解를 求하면 鐵道通過를 許함

一、諜叛에 直接關與한 日本人이 잇스면 直時 退去를 命함

張宗昌軍討伐 手段講究必要 機關紙京報를 通하야 馮氏山東進出을 希望

(北平二十二日發) 今朝 馮玉祥氏의 機關紙인 京報는 日中交涉과 山東의 張宗昌의 暴兵에 對하야 論하야 曰 張宗昌의 暴兵의 裏面에는 後援者가 잇슴이 明白하나 果然 如何한 程度로 實力上의 援助를 하고 잇는지가 問題이다 그리고 現在의 重要問題는 日中交涉에 잇지 안코 政府가 山東兵變에 對하야 果然 徹底的으로 討伐할 意思가 잇는지에 잇다 萬若 根本的으로 討伐할 意思가 잇다고 하면 如何한 程度에서 如何히 張宗昌 安福派를 處置할것인가 迅速히 適當한 手段을 講究할것이라고 論하얏는바 此는 馮玉祥派가 如何히 하야서라도 妥協하야 山東進出을 希望하고 잇는 證據로 觀測되더라

各國公使館의 南京移轉을 要求? 巡捕盟罷를 機會로

(北平二十二日發) 中國側報道에 依하면 國民政府는 各國公使館區域巡捕의 罷工問題를 機會로 近近 列國에 義和團事件에 依한 北平條約廢棄를 提議하는 同時에 各國公使館의 南京移轉을 要求할 正式照會를 發하리라더라

『政府는 進退를 考慮하라』 ◇濱口總裁談

(東京電) 貴族院에서 優諚問題決議案이 通過된것은 憲政을 爲하야 조흔일이다 提出者는 暗히 彈劾問責의 意思는 업다고 하나 『田中首相의 取한 處置는 輕率하고 不謹愼의 甚한바로 職責上 缺한바이 잇다』 고 말하고 또 此 職責이라는것은 首相의 補弼의 責任을 말한것으로 此가 通過되는 以上 政府는 政治道德上 回顧함이 업서서는 안될더이다 더욱이 首相은 貴族院本會議 또는 各派交涉會에서 職責上 缺한바이 업다고 信한다고 言明하야 首相과 貴族院의 信念은 正面衝突되엇더이다 此事實로 보아 政府는 進退에 對하야 깁히 考慮할것이라고 濱口民政黨總裁는 語하더라

委讓案通過與否가 政局의 最後的斷案 總辭職? 衆議院解散? 對貴院暗中飛躍開始

(東京電) 所謂委讓案의 前途는 畢竟 危殆케 되엇는데 優諚決議案에 依하야 瀕死의 重傷을 바든 政府로서는 그 面目을 回復키 爲하야 本案의 成立에 全力을 傾注치 안흐면 안되겟슴으로 今番에 貴族院과의 連絡統制의 完全을 期하려고 閣僚中으로부터 專任交涉係를 設하고 一面 暗中飛躍을 試하야 中立議員의 誘引計劃을 하는 等 必死의 努力을 하기로 되엇다 그런데 萬若 同案이 不幸히 否決될 時에는 正正堂堂히 立憲的 態度에 出하야 斷然 總辭職을 할가 或은 衆議院의 解散을 奏請할가의 二途中 其一을 選擇할 수밧게 업다는 覺念을 가진 模樣임으로 本案의 成否는 優諚決議案通過直後에 잇서 政府에 對하야 다시 重大한 難局에 當面하엿다고 할터로 그 結果 如何는 政局最後의 決定的 斷案을 齎來하리라고 思하더라

優諚案通過以上 一氣에 倒閣運動 小會派를 代表하야 鶴見氏床次氏訪問

(東京電) 鶴見祐輔氏는 小會派聯盟을 代表하야 二十三日 午前十一時十分 麻布私邸로 床次竹二郞氏를 訪問하고 優諚決議案이 貴族院을 通過한 以上 此際에 一氣에 倒閣運動을 닐으키어 民心을 一新할 必要가 잇다고 하야 小會派의 意見을 開陳하고 新黨俱樂部의 共同行動을 慫慂하엿는데 床次氏는 考慮後 二十五日에 回答할 旨를 答하고 正午에 會見을 마치엇더라

米穀法改正案 廿三日緊急上程

(東京電) 政友會幹部會는 二十三日 米穀法改正案議員提出을 議員案의 劈頭에 緊急上程하야 委員附託으로 하기로 二十二日에 決定하엿더라

尾崎、床次兩氏로 今後內閣形成 政民兩黨은 民意에 不孚 ◇鶴見祐輔氏의 意見

(東京電) 床次氏와 會見한것은 內閣倒潰運動을 目標로서 三問題를 進言한바 吾人은 田中內閣을 倒潰하더라도 반드시 民政黨內閣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안는다 即 二大政黨은 決코 國民의 總意를 表明한것이 아님으로써이다 即 吾等은 尾崎、床次兩氏를 내세워 참으로 國民的 內閣을 形成하야 國民大衆에 呼應치 아니하면 안되리라고 思한다

婦人公權案은 政府案修正 與黨態度決定

(東京電) 婦人公民權은 政府案을 修正하기로 二十二日 與黨委員은 態度를 決定하엿더라

世界가承認할 軍縮案을提議 近近米國에對하야 ◇英外相의言明

(로ー키ー廿三日發) 英外相『첸바렌』氏는 本日 當地에서 演說中 『英國政府의 調査終了의 時는 世界全部의 國家가 承認할수 잇는 軍縮提案을 米國에 對하야 할 權限이 잇다』 고 述하얏더라

兵變의原因은 李、魯의軋轢에서

(南京廿二日發) 湖南에 在한 兵變은 前者 程潛氏가 監禁된 以來 醞釀된 李宗仁氏와 湖南省政府首席 魯滌平氏(舊程潛部下)와의 軋轢에 起因한것으로 魯는 舊叢政治部下의 何鍵氏等과 相議하고 反武漢派聯盟을 組織後 李宗仁氏에 對抗하야 敵對行動을 取한 結果로 最近에 至하야 李宗仁氏를 暗殺할 目的으로 多數의 刺客을 南京에 派遣한 事實이 暴露되엇슴으로 李氏는 機先을 制하야 廣西派軍隊로 하야금 武力行動을 取하게 한것이다 李氏는 眼病治療를 口實로 二十一日 以來 上海佛租界에 잇스나 此는 右

兩湖軍衝突 魯、譚兩氏廣西派對抗 李宗仁軍과交戰

(漢口二十二日發) 兩湖省境 羊樓司에서 二十日以來 湖南軍의 魯滌平、譚道源兩氏는 湖北軍 葉琪氏와 衝突되어 目下 交戰中인데 原因은 魯、譚兩氏가 廣西派에 對抗하는 態度를 取함으로 李宗仁氏의 命에 依하야 葉琪氏가 此를 攻擊한것이라는바 武漢政治分會는 魯滌平氏의 湖南省政府首席의 地位를 剝奪하고 何鍵氏를 此에 任命하엿더라

共同調査委員會의 雙方意見全然背馳 이點에서 一致못보면 會見하야도決裂未免

(東京電) 王正廷氏의 來滬로 再開를 豫測하던 日中交涉은 前者 會見키로 二十三日에 니르럿스나 第七次會見을 하게되지 못하고 이대로 當分延期가 되게 되엇다 그 原因은 彌內、有野、崔士傑、周龍光氏等間의 豫備交涉에 依하야 交涉의 癥結이 된 協同調査委員會의 設置에 對하야 日中의 意見이 全然 背馳되는 背景이 明瞭한데 이에 芳澤、王正廷兩氏가 會見하게 되더라도 交涉의 決裂은 未免하리라는것이 主因이오 一方 議會에 在한 政府의 處地를 中國側이 靜觀하고 잇는것도 重要한 原因이다 그리고 日本政府는 不當한 犧牲을 내어서까지 交涉의 成立을 期할 必要가 업다 고 하고 交涉再開의 希望이 업슬 時는 곳 北平에 撤去하여도 조타는 訓令을 芳澤公使에게 與하엿스나 日中共히 芳澤公使는 곳 上海를 去하지 안코 第七次會見의 希望이 업슬 時에라도 徐徐히 事態의 變化를 기다려 態度를 決하리라고 觀測되더라

研究會料彈論 貴院權威損傷이라고 各派間에擡頭

(東京電) 今回의 優諚問題에 關하야 改革派가 强硬히 贊成論을 主張하엿슴에 不拘하고 依然히 幹部派의 研究會子爵議員은 此問題에 對하야 反對的 態度에 出하엿슴은 何等 識見과 抱負가 업시 無爲無能하게 政府의 諒解運動에 依하야 行動한것과 如하야 이는 實로 貴院의 權威를 傷함이라는 意見이 貴族院各派에 有力하게 되엇더라

政府今後態度 政界는兩個觀測

(東京電) 貴族院에서 優諚問題決議案을 通過한 後 不遠한 將來에 政府가 如何한 態度에 出할가에 對하야 政界에서는 左의 二個의 觀測을 하더라

一、租讓案이 貴族院에서 有耶無耶가 되고 또는 否決의 厄에 遭할 때에 此를 機會로 進退를 考慮할 것이라

二、貴族院에서 如何한 難關에 遭할지라도 政府는 衆議院에서 이미 信任을 得한 以上 介意할것이 업다 하야 議會後 內閣의 改造를 斷行하고 新陣容을 整頓하야 國民에게 보일 것이라

彈劾아니니 注意로밧겟다 田中首相固執

(東京電) 田中首相談=今번 決議案은 提案者의 語에 依하면 彈劾案도 아니오 不信任案도 아니오 親切히 政府에 注意시킨다는 것이라 하니 그러면 그러케 밧겟다고 思한다 余로서는 그런 問題에 對하야는 十分注意하지 안흐면 안되겟다고 思함으로 살가바 들러이오 또 政府로서는 此問題에 對하야는 이미 議會에서 釋明하엿슴으로 此案에 다시 무엇이라고 答하지 안는다

內閣을改造 『力』으로써維持 引責必要全혀업다 ◇政府某有力者談

(東京電) 政府의 某有力者는 今後의 政局에 關하야 左와 如히 語하더라

貴院에서 問責決議案이 可決되더라도 彈劾이 아닌 以上 責任을 取할 必要는 업다 吾人은 가장 內閣의 支持에 努力中임으로 結局 政府는 이대로 잇슬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政府는 本會議의 終了後는 一切의 情實을 排하고 斷乎히 內閣의 改造를 圖하야 內閣의 充實을 圖하는 一方 專任外相도 決定하야 外務官의 更迭을 斷行하는 同時에 此에 依하야 黨內의 不平도 一掃하고 與黨과 力을 合하야 力으로써 政綱을 維持하고 全力을 傾注하야 現內閣의 人氣回復에 努力하야 今後 突發的 事件이 惹起치 안는 限에는 기어히 政權을 내어노치 안흘 方針이다 그리고 되면 或은 貴族院에서 豫算案이 通過된 後 斷然 貴族院改革의 烽火를 擧하야 此에 挑戰을 하게 될런지도 모른다

優諚案通過로 政府焦燥 委讓案도問題

(東京電) 政府가 全力을 傾注하야 防止에 努力한 優諚問題決議案은 드듸어 多數로써 貴族院을 通過한 外닭에 政府는 失神狀態인듯

優諚案可決로 其他諸案이問題 政府는今後를憂慮 委讓案의運命如何

(東京電) 優諚問題決議案이 二十三票多數로써 可決된것으로 直時 政府가 總辭職은 하지 안는다 하더라도 當然 政局의 將來에 對하야 多大한 影響을 與할것은 想像키 어렵지 안타 그런데 當面의 影響으로는 目下 貴族院에서 審議中인 豫算案은 이미 衆議院을 通過한 重大案일뿐아니라 貴院으로서도 通過할것은 明白하나 他의 重要法案 特히 兩稅委讓案과 如한것은 結局 審議未了가 될 憂慮가 잇고 其他 宗敎團體法案도 運命이 危殆할뿐아니라 今後 衆議院에서 提出될 自作農法案、肥料管理法案等의 運命도 憂慮되더라

倒閣派의諒解어더 不戰條約批准阻止 『人民의名』云云의憲法上矛盾들어 尾崎行雄氏로부터提案?

(東京電) 尾崎行雄氏는 不戰條約問題에 關하야 不遠 衆議院에 左의 決議案을 提出하기로 決하고 倒閣派의 贊成을 求하는中이다 即 左記草案과 如히 政府가 締結한 不戰條約第一條의 『人民의 名으로써』의 字句는 憲法解釋上 矛盾이 됨으로써 批准奏請을 阻止하려는것이다

決議案

昭和三年八月二十七日로써 帝國政府가 調印한 不戰條約의 趣旨目的은 本員의 가장 깁히 贊成하는바이다 그러나 그 第一條에 明記한 『人民의 名으로써』 宣言한다 함은 人民이 帝國主權인것을 承認하야 憲法第一條 第四條 及 第十三條에 違背되고 또 日本國體變更의 結果를 誘起할려이다 故로 政府는 此批准을 奏請하지 말고 別途의 方法에 依하야 右不戰條約의 趣意目的을 忠實히 하고도 嚴正히 貫徹함을 要함 右를 決議함

提案理由 發表할터 ◇尾崎氏談

(東京電) 不戰條約問題에 對하야 決議案을 提出하려고 思하나 各派의 贊成이 업스면 提案은 되지 못할터이다 如何턴 其時에 詳細히 提案理由를 發表할터이다 優諚問題의 決議案이 貴族院을 通過한것에 對하야는 政府도 愼重히 考慮치 안흐면 안될터이다 輕率不謹愼하고 職責上 缺한바가 잇다고 한 以上 當然 處決치 안흐면 안될것으로 政府에 對하야 此決議案의 通過는 勿論 打擊이다 萬若 政府가 決議를 尊重히 하는 途를 取하지 안흘 時는 政府는 議院을 無視하는것이 됨으로 如何한 決議案에 對한 結果가 具體化하게 될것이다

改正임으로 贊成無妨 民政側의意向

(東京電) 尾崎行雄氏가 提案하고저하는 決議案에 對하야 民政黨은 根本的으로 條約의 批准을 拒絶하라는것이 아니오 政府의 態度를 憲法의 精神에 反함으로 此를 改正하라는것임으로 相議에 應하야 贊成하여도 可하다고 語하더라

辭令

總督府屬 豐田長智

任道立醫院醫官(七等) 鈴木康

朝鮮總督府郡守(平北) 成禎洙
文官分限令第十一條第一項第四號에 依하야 休職을 命함

八面鋒

○英外相은 言明하야 가로되, 『調査가 끗나면, 어느나라고 承認할수 잇는 軍縮案을, 米國에 提議하겟다』 고

○調査하야 보아서, 自己나라 軍備가 優勢면, 軍縮도 우물주물인가?

○劉珍年과 衝突된 張宗昌은, 敗하엿다

○몃十몃百번져도, 五色旗는 휘날리나, 싸움에는 連敗

○五色旗만 變치말엇스면, 더 所願업스련다

○그러나, 어쨋든, 닥드리는 차음 무러질세는, 이번도 亦是時不利兮ㅣ가

江原道區域變更問題로 陳情委員上京
總督府의 眞意를 探索코저

旣報한바 道區域變更說에 對한 春川市民들의 態度는 자못 自重하는 態度로 數次의 會合이 잇섯스나 其將來의 推移를 注視하야 進行키로 하고 特別委員會를 두어 調査의 任에 當케 하야 오든 中 近日新聞紙上으로 或은 流言으로 各樣意外의 消息이 傳布됨에 이르러서는 不可不 對應策이 잇서야 하겟다 하고 지난 二月二十日午後三時半부터 春川金融組合 樓上에 多數地方有志들이 會集하야 商議한 結果 먼저 總督府當局의 態度를 알어볼 必要가 緊急하다 하야 長文의 陳情書를 作成하야 二月二十四日에 陳情員을 上京케 하얏다는데 同委員의 氏名은 如左하다더라(春川特信)

◇陳情委員氏名

李東根 崔經浩 久武常次 山中友太郞 寺田省三郞 榛原鎌吉

全南道評議會 二十日에 開幕

全羅南道評議員會는 去二十日부터 商品陳列館二層會議室에서 開會하얏는데 當日에는 新任知事 金瑞圭氏의 演說이 잇섯고 新任內務部長 岡崎氏의 豫算案說明이 잇슨 後 翌二十一日은 硏究日로 定하야 休會하기로 하고 二十二日은 開會하엿는데 압흐로 來三月一日까지 前後十日間을 通하야 會議는 繼續될 것인바 今年度地方費豫算은 左와 如하다더라

◇歲入의 部

經常費 一、二三八、七〇七、五六五圓 (前年度와의 比較增) 一一三、五二九
臨時費 八三〇、七三〇 (前年度와의 比較增) 三二、六八九
合計 三、一二八、二九五 (前年度와의 比較增) 一四六、二一八

◇歲出의 部

經常費 一、三六六、五二五圓 (前年度와의 比較增) 四六、四六六
臨時費 五六四、八三四 (前年度와의 比較增) 三一、六四四
補助費 一、二八六、九三六 (前年度와의 比較增) 三三、四三九
合計 (歲入과 同)

咸南道 敎員試合格者 十四日發表

今年一月咸鏡南道에서 施行한 小學校普通學校訓導試驗合格者와 學科成績佳良證明書授與者는 去二月十四日左와 如히 發表되엿더라

▲第一種合格者 無함 ▲第二種合格者 元澤淵 朴良洙 韓斗煥 韓長錫 秋璟求 金基業 咸彦任 金基鉉 金大成 朴永錫 崔命根 安應燮 李幸仁 尹相李 金貴率 趙珠河 李淳寬 李奇禹 安秉淳 金洪丸 金勳朝 ▲第三種合格者 金致權 李豊熙 ▲佳良證明書授與者 ▲第一種 李鼎海 李求禧 金公淑 村上種一 ▲第二種 吳德根 韓希均 金相鎭 具滋 ▲第三種 徐永豐 金寶奎 李永洽 金龜錫

珍島海苔 大阪市場出廻 成績매우良好

珍島郡海苔漁業組合에서는 海苔産業의 獎勵에 努力한 結果 本年度에는 더욱 海苔漁業成績이 良好함으로 直接 그의 生産當業者와 同組合當局에서는 勿論 歡迎할 뿐아니라 本郡全地方的 産業經濟로 보아서 一般은 매우 깃버하는 中인데 過般同海苔入札期에는 自然的 時勢低落의 影響이든지 或은 入札商人들의 野慾的 結束한 關係이든지 그 入札狀況이 依然히 閑散不振함으로 도리어 生産當業者와 同組合當局은 多少困難을 늣기든바 組合當局의 英斷으로 同海苔現物을 直接 大阪市場으로 出廻하엿든바 實로 豫想以上의 好成績과 高價로 되어 販賣된바 當地의 時價보다는 大概 萬圓以內의 海苔로서 四千圓以上의 巨大利益을 어덧다는데 무엇보다도 道廳移轉되는 구렁에서 우는 一般生産者의 利益을 爲하야 아깃버하는 同時에 組合當局의 努力과 英斷을 一般은 매우 稱揚한다더라(珍島)

春川森組發起 實施後에는 入山料徵收

오는 新年度初부터 實施코자 目下 春川各面長들이 發起中에 잇스며 各山林所有者에게 承諾의 捺印을 勸誘中에 잇다는데 이것이 實現될 때에는 지금까지 自由로 入山하야 柴草를 뜻든 一般農民들에게 入山料를 밧게될 뿐으로 (發起趣旨에 明記되엿슴) 農民階級의 새로운 恐慌이 잇슬것이라 하며 一方 山林所有者로서도 組合事務의 執行上 必要한 經費 又는 雜役의 負擔과 義務를 絶對로 지지 아니할 수 업는 形便이라는데 近近 創立總會를 보리라더라(春川)

新幹咸陽支會 二回定期大會

慶南咸陽新幹支會에서는 去二月廿日午後一時부터 天道敎宗理院에서 第二回定期大會를 開하고 臨時會長 崔性淳氏의 深長한 開會辭를 비롯하야 會員 韓敬烈氏의 經過報告가 잇슨 後 議長選擧에 들어가 盧昌漢氏가 被選되엿고 討議案에 들어가 會館問題와 本年度豫算編成과 本部定期大會에 提出할 議案作成은 新任委員에게 一任하기로 決議하고 左와 如히 幹事會改選한 後 同四時頃에 閉會하엿다더라(咸陽)

◇幹事

支會長 盧昌漢 副會長 李鍾鎬 幹事 金柱成、金性圭、金秉九、趙淳濟、韓敬鳳、林準圭、盧榮漢、河在英

權友大邱支會 設立一週紀念 今日午後七時

權友會大邱支會에서는 二十五日이 同會設立一週年임으로 이것을 紀念키 爲하야 同日午後七時부터 朝陽會館에서 本報大邱支局後援으로 紀念講演會를 開催하리라는데 演題는 다음과 가튼데 女性團體의 講演은 大邱에서 처음임으로 全大邱의 人氣는 專혀 이곳으로 集中되어 盛況을 豫期할 수 잇더라

早婚及强婚에 對하야 李相淑
未定 金成姬
未定 崔貞玉

權友馬山支會 發起人會

慶南馬山에서는 지금까지 女性運動團體가 업슴으로 運動의 統一上 直接間接 莫大한 影響을 밧게되여 누구나 勿論하고 오래동안 遺憾으로 생각하든바 지난 二十日午後八時 萬町李相淑氏家에서 權友馬山支會의 發起人會를 開催하고 設立에 對한 諸般事項을 討議決定後 同十一時頃에 閉會하엿다더라(馬山)

◇設立準備委員 徐成實 安貞浩 梁福順 朴信實 金今灼
設立大會時日 三月十三日午後一時
大會場所 馬山獨立예수敎會堂
準備事務所 馬山午東洞新幹馬山支會事務所

全州社會各團體 一切集會禁止 ◇……三月十日外지

全北全州警察署에서는 來三月一日을 期하야 지금부터 三月十日外지는 社會各團體를 勿論하고 一切集會를 禁止할 方針이라 하야 全北靑年聯盟執行委員會도 三月三日에 開催하기로 하얏다는데 今回外지 三次의 集會禁止를 當하야 同委員會는 不得已 無期延期을 하고 말엇다더라(全州)

光州玄俊鎬氏 公職辭表返却

光州玄俊鎬氏는 昨年十一月中에 某事件의 因緣으로 十餘種의 公職全部를 辭任케 되엿든바 昨十九日에 突然 辭表全部를 撤回하엿스나 二十日 道評議會에는 出席치 안코 上京하엿더라(光州)

長淵醸酒場 非難聲漲天 衛生大障害

長淵醸酒場은 位置가 邑中央일 뿐 아니라 道路가 四通八達하여 來往하는 사람이 連絡不絶하는 中 모주 냄새와 石炭煙氣로 因하야 來往客이 呼吸을 잘 通치 못하며 非難이 만타 함은 旣報한바 어니와 게다가 요사이는 술이 잘 나지 안는다고 一週日間이나 晝夜를 繼續하여 굿을 함으로 近方에서는 밤에 잠잘 수가 업다 하며 普通學校와 連接하여서 天眞爛熳한 學生들에게까지 不快를 줌으로 非難이 더욱 甚하다는 바 一般은 衛生上으로 보드래도 대단히 害롭다고 非難하더라(長淵)

碧潼大平面 公普設立運動 期成會組織 役員을 選定

厥報 平北碧潼大平面에서는 一般人民이 敎育에 熱中하야 公普設立期成會를 組織하고 本部를 該面事務所內에 置하며 支部는 各洞에 置하얏다는데 役員의 氏名은 左와 如하다더라(碧潼)

▲期成會會長 金元弘 總務 金澤

平壤電氣動力 府에서 買收契約 電料値下는 府民要求에 順應

平壤電氣가 府營된 以來로 平壤一般府民은 電燈料及電動力使用料에는 相當한 利益이 잇섯슴으로 一層値下하야 달라고 平壤府에 要求하얏슴으로 平壤府에서는 松井府尹이 上京하야 遞信局內務局에 電料申請을 하얏든바 電氣料金改訂期가 明年三月이며 또한 電興會社로부터는 今年度부터 事業을 擴張하는 中임으로 府營當時에 契約되든 料金電燈一「키로」에 二錢一厘 電動力一「키로」에 二錢九厘以下로 引下할 可望도 別로 보이지 안햇슴으로 直下하는 것보다 이 問題의 完全한 解決策으로는 現今과 가티 電興會社로부터 二重供給을 밧지 안코 平壤府에서 電氣를 直接으로 一般府民에게 供給케 하자 하야 平壤府에서는 電興會社電動力引受에 關한 交涉을 하야 오든 中 去十六日에 京城호텔에서 電興會社吉田專務와 松井府尹이 會見相談한 結果 府에서는 協定案을 提出하고 今後十五年남짓 雙方의 共通한 利益을 어들만한 協定을 하야 電興會社의 營業權(平壤區域만 限함) 買收키로 한 後 全鮮電氣狀況과 今後十五年間에 價格趨勢等을 基礎로 한 推定額을 定하고 雙方이 討議하야 特別한 差異가 업섯슴으로 同日夜에 買收契約을 協定하고 正式調印을 마치엇다는데 其買收價格及其他諸般內容에 對하여는 秘密에 부침으로 알 수 업스나 平壤府는 十五年賦로 償還을 할 터이며 現下問題中에 잇는 電料値下도 府民의 要求에 順應하야 値下할 터이라 하며 이 問題로 去二十二日午後二時에 平壤府會議室에서 府協議員會를 緊急召集하고 秘密會議를 開會한 後 府尹으로부터 大略한 經過報告가 잇섯다는데 來二十六日에 開催되는 府協議會와 今月下旬頃에 京東에서 開催되는 電興會社重役會議에서 本議案通過如何를 보아 確定될 터이라더라(平壤)

華川郡農會 第四回定總

江原道華川郡農會에서는 지난 十五日午後二時四十分 華川郡廳內 會議室에서 第四回定期總會를 開催하엿는데 議長李武性氏가 開會를 宣言하고 諸般事項을 決議한 後 午後四時二十分에 散會하엿더라(華川)

◇決議事項

一、昭和四年度華川郡農會經費收入支出豫算承認의 件
二、昭和四年度華川郡農會經費分賦收入方法의 件
三、昭和二年度華川郡農會事業報告竝同收支決算承認의 件

江原大和靑年 會館建築準備 日間工事着手

江原道平昌郡大和靑年會는 創立된지가 三週年이 되엇스나 아즉 會館이 업서서 他人의 家屋을 借用하든바 去年度에 會長으로 同地 和氏가 被選된 後 氏는 會館建築에 以來熱誠을 다하야 周旋한 結果 今正에 大略建築計劃이 되어 不日間工事에 着手할 모양이라는데 同地에서는 누구나 氏의 熱誠을 稱讚한다더라(大和)

道路橋梁維持를 目的한 共榮自働車會社 道地方費收益이 九千圓

慶北大邱에 잇는 共榮自働車會社에서는 最近에 이르러 大邱醫院行 「버쓰」自働車를 十錢均一로 運轉하야 市內交通이 完備되지 못한 大邱에서는 各方面으로 利用者가 만흐며 直接間接의 便宜가 만흔 터인데 이 會社는 昨年에 慶北道에서 地方費를 利用하야 生産事業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道收入에 編入식혀서 道民의 課稅率을 조곰이라도 輕減식이고자 始作한 것으로 開業以後 決算을 한 結果 成績이 良好하다는데 道評議會가 멀지 아니하얏슴으로 今年에는 新規事業으로 또 한만히 提議하얏다가 同會議에서 通過만 되면 加一層擴張하리라는데 同會社로 中谷社長을 訪問한즉 다음과 가티 말하더라(大邱)

共榮自働車會社設立趣旨는 前者에도 말슴햇거니와 지금 第一回決算을 맛치고 낫스니 나의 所信과 希望을 두어마듸 말슴하겟습니다 아시는 것과 가티 昨春道評議會에서 道路橋梁維持費基金造成目的으로 自働車營業收益을 圖코자 滿場一致可決한 外닭에 共榮會社가 昨年七月廿一日에 諸般手續을 마치고 同月廿二日開業을 하얏는데 암만해도 創業初의 일이라 支出이 만흔데다가 乘客減下를 斷行하는 等 일이 만허서 豫期한 收入이 업섯습니다 萬一 지금이라도 同業者로서 道評議會의 趣旨에 贊同하야 共榮會社와 同一步調를 取하야 斯業統一을 식힌다면 年額六七萬圓의 收益을 엇기에는 어렵지 안흘 것입니다 그러면 每年數十萬圓식의 土木費를 쓰는 本道에서 六七萬圓이라는 것이 크지는 안치만 賦役의 緩和를 보일 수 잇고 또 或은 緊急維持費로 充當한다 하여도 좀 조켓습니까? 直接間接으로 全道民에게 影響이 만흔 것입니다 이 意味에 잇서서 여러분의 援助와 同業者의 贊同을 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大邱醫院行十錢均一車運轉에 對하야 或者는 共榮會社가 不遠開始될 府營「버쓰」에 對한 선손질로 그것을 阻止코자 하는 말을 流布식히나 그것은 一種의 臆測이나 中傷에 不過하는 惡宣傳이고 우리의 眞意를 모르는 것입니다 設立趣旨로 보아 市民의 便宜를 圖하는 것이니 病院이 移轉한 後로 一般通院者의 不便이 여간 아니어서 病院當局에서도 그것을 願望한 것이니 誤解치 말고 잘 利用해주시기 바랍니다 云云

執行委員 金鍾源 金昌復 崔鶴表 金秉律 金得河 金忠國 楊時燁 金鳳献 金君植 金炳麟 崔俊七 金南抵 文學吳 金國恒 金仲七 玄得奎 金仁昌 金昌信 崔龍涉 金樂鉉 申炳爛 金謝俊 金澤健 金庸抵 李炳銑 金炳烈 崔洪九 金秉龍 金官元 金昌歆 公登龍 金永煥 ▲相談役 崔致俊 金炳南 崔澤龍 李朗昊 金瀅珍 金湘龍 申璟任 金日鳳 康龍號 金承蘇 金朗煥 金炳三 金日寶 金炳云 金兌錫 ▲各洞支部役員 陽平洞支部長 金碩允 陰平洞一區支部長 金善冑 陰平洞二區支部長 金昌禎 上平洞支部長 金學彦 下平洞支部長 安濟淳 平外洞支部長 李朗鳳 平內洞支部長 金正魯 ▲顧問 金聖參 楊澤善 上村義文 濟原壯

夜學經費爲해 映畫大會開催

湖南線松汀里勞働夜學院은 當地靑年會의 一大事業으로 距今六年前에 創設한 以來 그동안 維持經營上 經費의 困難이며 其他의 波瀾과 曲折이 非一非再이엿스나 幹部들의 血誠과 地方有志의 同情으로 維持하여 오든바 昨年多大의 水災로 因하야 校舍의 損傷이 莫甚하든바 到底히 그대로는 維持치 못하게 되엿슴으로 不得已 幹部들은 同情映畫大會를 開催하는 同時에 臨時總會를 召集하고 寄附金을 募集하는 中 現金額이 四十餘圓에 達하엿다더라 그리하야 이 收入으로 新學期準備에는 넉넉하게 되엿다더라(光州)

入學紹介

◇統營公立水産學校

◇募集人員 第一學年生約三十五名
◇入學資格 年齡滿十二歲以上의 尋常小學又는 修業年限六年의 普通學校卒業者
◇入學手續 本校所定樣式의 入學願書履歷書及昭和三年十二月以後의 戶籍謄本과 出身學校長의 所見表를 二月末日外지 提出할事
◇入學試驗 募集定員에 超過할 時는 左의 選拔試驗을 行함
試驗日時 昭和四年三月六日七日 兩日間午前九時로부터 國語、算術、口頭試驗、身體檢査等
◇志願者心得 三月五日午後二時同校에서 受驗票交附
三月八日午後三時同校內에 受驗合格者發表

◇晉州振明學院

一、授業目的 (가)各中等學校 實業學校及補缺試驗準備
二、入學資格 (가)普通學校卒業及同程度者
三、授業科目 (가)修身 朝鮮語 國語 算術 理科 地理 歷史 英語
四、募集人員 男女約百名
五、願書提出期限 三月二十八日

◇晉州振明學院
◇募集要項
一、授業目的 各中等學校 實業學校 入學補缺試驗準備
二、入學資格 普通學校卒業及同程度者
三、授業科目 修身、朝鮮語、國語、算術、理科、地理、歷史、英語
四、募集人員 百名
五、願書提出 三月二十八日外지
注意 募集人員이 定數에 超過할 時는 選拔試驗을 行함

延白昨年度 叺生産成績 二十五萬枚

黃海道延白郡農會에서 昨年度一年間延白郡內叺織生産의 檢査成績을 調査한 바에 依하면 等級別은 左와 如하다더라(白川)

等別	數量 枚	價格 圓
一等	二〇六、七一三	四一、三四六
二等	四三、四四〇	六、五七七、五
等外	七、七五三	七五四、五
計	二五七、九〇六	四八、六七八

洪原勞軍分會 定期總會開催

咸南洪原勞働組合에서는 今回의 組合車軍分會定期總會를 去十六日午後二時頃부터 洪原勞働夜學校舍에서 開催하고 同分會委員長 金溶麟氏의 開會宣言과 金珠極氏의 司會下에 經過報告를 마치고 臨時議長 崔炳燦氏의 開會辭를 마치고 臨時議長으로 文明哲氏를 選擧하야 會務를 進行한 後 萬歲三唱으로 閉會하얏더라(洪原)

◇被選委員 委員長 金溶麟 徐昇燦 金珠極 洪思鷹 楊亨根 朴承明 李弘稙 金洪洙 朴根 劉致玉 汝達洪 都相希

◇討議案 一、會館問題에 關한 件 一、末組織車軍에 關한 件 一、農期各隊改定에 關한 件 一、自體文盲退治에 關한 件 一、三總及新幹集會解禁에 關한 件 一、共濟規約改正에 關한 件

◇役員 會長 文春培 副會長 文永祚 總務 尹夏如 幹事 文允而 金福永 吳時鍾 宋允俊 會計 文濟吉(鳳西)

瓦電買收 調停價格 二十二日發表

瓦電買收調停案에 對하여 二十一日午後假調印을 見함에 至한바 二十二日府當局은 右買收調停價格은 六百四十二萬五千四百二十六圓이라는 旨를 發表하엿더라

全北道評議會 三月九日開催

全北道評議員會는 來三月九日부터 全北道會議室에서 約一週日間 全北道評議員會를 開催하리라더라(全北)

晉州에서 同成親睦會 日本留學生으로

晉州에서는 日本에서 專門學校以上卒業者가 多數하나 何等의 機關이 업섯든 것을 遺憾으로 생각하든바 去二十一日午後七時부터 朝鮮料理店京城館에서 在晉州日本留學卒業生二十餘名이 集合하야 姜振秀氏司會로 同成親睦會가 創立되얏다는데 任員의 氏名은 左와 如히 決定하고 同十二時頃에 大盛況으로 閉會하얏다더라(晉州)

代表幹事 文興健 幹事 姜周秀 徐相湜

利原畜組講演 左記日字로

咸南利原畜産組合에서는 今般 畜産思想의 向上과 患畜治療의 徹底를 圖하기 爲하야 左記日割에 依하야 畜産講話會並巡廻施療를 開催한다는데 一般農家는 多數集合하기를 바란다더라(利原)

日字	場所
二月十九日	西面栗德里
二月二十日	院前里
二月二十一日	松江里
二月廿五日	東面昌坪里
二月廿六日	濟洞里
二月廿七日	大木里
三月二日	南面豐釜里
三月三日	角宗里
三月四日	原作里

甲山幼稚園 基本金寄付

甲山幼稚園基本金으로 指定하야 寄贈한 이의 氏名과 金額은 如左하다더라

曹喜烈 蔡欽 張衡律 李信徵 各二十圓 盧基宇 三十圓 吳丙燮 十五圓 金三龍 延鳳鎬 金龍均 金熙濬 金炯鳳 各十圓 金翰洙 韓鐵元 金光源 盧姬錫 李廷崙 李賢淳 金殷瑞 朴啓龍 朴寅國 各五圓

白川鼎村里 禁酒會組織 里內有志發起

陰十二月廿六日에 延白郡鳳西面鼎村里 文永祚氏의 發起로 里內有志諸氏가 會集하야 禁酒會를 組織하는 同時에 會費는 每名拾錢으로 定하엿는데 當日 禁酒會에 志願者가 百餘名에 達하야 滿場一致로 諾

金聲遠氏의 慰勞宴開催

咸南文川郡都草面鶴浦里牛車殖産組合員外有志諸氏의 發起로 去六日에 該里內無産兒童의 敎養機關인 大成講習院을 設置한 金聲遠氏의 慰安宴을 同院內에서 採濁寬氏의 司會로 開催하고 氏에 對한 感謝의 辭와 答辭가 잇슨 後 散會하얏다더라(文川)

讀者慰安會 本報支局主催

全北秋安東亞朝鮮兩支局에서는 共同主催로 本月二十四日午後七時半부터 靑年同盟會館에서 讀者慰安音樂大會를 盛大히 開催하엿는데 當夜에는 讀者及讀者의 家族에게만 限하야 入場을 許하엿스며 場所가 좁음으로 場內整理를 爲하야 一人에게 十錢式을 바엇스며 써는 달밝고 한가한 正月대보름임으로 盛況裡에 無事終了되엇더라(秋安)

咸平에서 面長會議

지난 二月十九日午前十時부터 二十日午後三時外지 兩日間 面長會議를 郡會議室에 開催하고 郡守 趙偕濟氏의 開會辭를 비롯하야 第一日에는 面의 一年間行事를 指示하고 第二日인 二十日에는 여러가지의 討議事項이 잇섯는데 大概를 公文으로 알리우고 左記事項만 討議하얏다더라(咸平)

◇決議事項
一、赤十字社員募集의 件
二、愛國婦人會員募集의 件

茶山朱乙池 改築工事 今春부터 始作

慶北高靈郡茶山面에 잇는 朱乙池는 蒙利畓六十餘町步의 排水機關으로서 旱乾한 茶山面에 잇서서는 唯一한 生命關門이라고 할 수 잇는 大池인 바 從來로 修改築의 人工을 加하지 아니한 結果로 引水에 매우 不便을 늣겨 오든 터인데 昨秋에 關係地主들이 水利契을 組織하야 今春부터 改築工事를 始作하기로 하고 道當局에 補助申請을 하얏는데 얼마前 總督府로부터 實測外지 하여 갓다는바 補助는 總工事費의 半額은 되겟다 하며 이 工費로서 昨年災害民의 窮春生活에도 一部補助가 되겟다더라

李一文牧師 匿名은 弁白

全北全州郡助村面銅谷里耶穌敎牧師李一文氏는 同里徐漢鳳 金贊榮外六七人等의 匿名으로 同里朴元長妻崔姓女를 强姦하얏다는

粟米百俵 窮民에 配給 姜賢秀氏特志

咸南利原郡姜賢秀氏는 敎育과 社會事業에 貢獻이 不少하든 中 昨年災害로 因하야 窮迫한 貧民에게 粟米百布袋를 配給하여 달라고 去二十日에 自進하야 利原郡廳에 依賴하얏다는데 氏의 特志에 一般은 勿論이오 郡에서는 利原郡東西南三面에 散在한 貧民을 目下 調査中이라더라(利原)

咸平靑年同盟 鶴橋支部總會

지난十七日午前十一時頃에 咸平靑年同盟鶴橋支部에서는 第一回定期總會를 開催하고 任員及代議員選擧와 左記各項을 討議한 後 午後三時에 閉會하얏다더라(咸平)

◇討議事項 一、盟員整理及募集의 件 一、會費徵收의 件 一、臨時支部館位置의 件 一、各里農民夜學促成의 件 一、本同盟大會建議案作成의 件 一、全鶴橋靑少年陸上競技大會開催의 件 一、各班狀況報告

◇任員 委員長 尹平 庶務部 李鏖 尹炳欽 財政部 李烈 朴道星 敎養部 尹田植 體育部 尹泰吉 少年部 李張府

◇代議員 尹平外六名

華川畜産組合 評議員會開催

江原道華川郡畜産組合에서는 지난 二十五日午後四時三十分 華川郡廳會議室에서 昭和四年度評議員會를 開催하얏는데 議長李武性氏의 開會辭가 잇슨 後 決議하고 同五時三十分에 無事閉會하엿다는 바 決議事項은 如左하다더라(華川)

◇決議事項
一、昭和三年度追加豫算承認의 件
二、昭和四年度豫算에 關한 件

地方人事

▲宋在昇氏(本報大田支局長) 日本商工業視察團에 參加하기 爲하야 去二十三日本社로
▲朴秀甲氏(朝鮮實業타임쓰社特派員) 大田方面에 事務를 帶하고 去二十二日午後十二時發車로 江景出發

權寧奎氏美擧

江原道平昌郡大和面新里權寧奎氏는 數月前에도 大和耶穌敎禮拜堂을 建築하는데 一部의 材木을 寄附하얏고 또 今般 大和靑年會館을 建築하는데 十間이나 되는 家屋의 材木一切을 自己가 負擔하겟다고 하야 不遠間 材木伐木에 着手하리라는데 同地에서는 氏의 美擧를 稱讚한다고

東萊索戰大會

東萊에서는 舊正初노리의 唯一한 民衆的運動인 索戰大會를 開催하려고 오래동안 準備中이든바 去十七日午後七時에 當地靑年同盟會館에서 有志六十餘人이 會合하야 索戰大會를 組織하고 東西兩部代表와 大會委員長及委員을 左記와 如히 選擧한 後 一切準備를 委員會에 一任하고 散會하얏다는데 今年의 索戰期日은 本月二十三日午後四時부터 同二十六日下午四時外지 滿三日동안이라더라(東萊)

◇兩部代表 東部=朴過衡 朴熙麟 金炳佑 西部=金炯贊 金隣永 尹世炳 委員長 金秉圭 委員十八人(略)

江原大和에 短期農事講習 二十日부터

江原道平昌郡大和面에서는 例年에 依하야 지난 二十日부터 同面會議室에서 短期農事講習會를 開催하엿는데 講習生은 各里에서 薦擧한 農家三四人式으로 二十餘名에 達하며 講師는 郡又는 面技手諸氏라더라(大和)

鎭川愛人病院 社會貢獻莫大 慈善事業인

鎭川愛人病院長 氏는 朝鮮聖公會經營인 愛人病院長으로 今三十年前에 朝鮮에 와서 慈善的으로 病院을 設立하고 以來 努力을 앗기지 안는바 이제 그 經營하는 形便을 보면 每人當十五錢弱이란 참으로 놀날만한 低廉한 治療를 맛게 된다는데 一般은 그 慈善的 事業에 感謝한다더라(鎭川)

京南農民柶擲大會

一、日時 二月二十五日正午(陰正月十六日)
一、場所 竹山農友聯盟會館
一、賞品 一等黃牛 二等匹木 三等稻扱機 四等鍤 五等手巾
一、申請場所 竹山農友聯盟事務所
一、入會金 每人分 五十錢

主催 竹山農友聯盟
後援 中外日報 朝鮮日報 東亞日報 安城支局 竹山支局

沿江兒童作品展覽會

出品種類
◇自由畵 用紙는 普通圖畵用紙에 限하고、模寫와 臨本畵는 謝絶함
◇習字 用紙는 半紙에 限함
◇手工品 鐵製、木製、刺繡、編物、粘土細工、色紙細工、紙細工及其他
(以上三種은 返還을 要하는 時는 展覽會閉會後에 返還함)
◇作文 童話、童謠、童歌、劇脚本、童詩、日記等其他

出品數量 二月二十八日外지 義和少年會로 一校(一團體)에 各五十點以內(個人이면 各五點以內)
開催 三月廿一、二、三日 西江辯法學校에서
施賞 審査後 優秀한 作品에는 賞狀과 賞品을 授與함
◎出品者의 住所氏名年齡과 何學年等을 반드시 明記添付할 事
主催 義城少年會 ◇後援 朝鮮日報高陽支局